3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정치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전문성

최 종 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정치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전문성

최 종 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대통령 선거와 '00현상'

 # 장면1

[고건씨는]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 해 두 번째로 총리직에 있던 시절엔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고 건씨가 다음 대통령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해 9월 이래 그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 1위로 꼽히고 있다. 고 건씨 자신도, 드러내놓고 의중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을 부정하지도 않고 있다. 높은 선호도 탓인지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고건씨에게 구애 중이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문호는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 유권자들이 그를 선호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견주어 안정감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공직 생활 내내 청렴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거론되고, 오랜 관직 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륜'이라는 것도 회자된다(고종석, 한국일보 2005/06/23).

 # 장면2

'안철수 신드롬'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기세가 오히려 올라 '박근혜 대세론'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안 원장이 지난 4년간 '절대강자'로 군림해왔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6일 실시, 7일 발표된 2개 여론조사 결과 안 원장은 양자 대결시 지지율에서 박 전 대표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리얼미터 조사에서 안 원장은 43.2%로, 박 전 대표(40.6%)를 제쳤다. 뉴시스·모노리서치 조사에서도 42.4% 대 40.5%로 따돌렸다. 비록 오차범위 내이지만 박 전 대표가 1대1 가상대결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일보 2011/09/08).

 # 장면3

지난달 단연코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것은 '반기문 대망론'이었다. 유권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세계 대통령'인 유엔 사무총장이 고국을 찾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것 자체가 사실상의 대권행보를 염두에 둔 일종의 '정치적 예열'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일부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율이 '수직상승'했고, 여야는 각자 복잡한 정치적 셈법으로 반기문 대망론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주로 여권은 '선의의 경쟁' 상대로, 야권은 '평가절하'로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 다만 외교전문가가 아닌, 국정 수반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과 정치현실상 혹독한 현실정치의 벽을 뛰어넘고 감내할 만한 '면역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 출발점에서 불기 시작한 '반풍'은 국가지도자 선택 부재에 따른 '대안론'으로 급부상하면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단숨에 1위에 올랐다(파이낸셜뉴스 2016/06/26).

퀴즈 하나. 위에서 제시된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아마 정치에 약간의 관심만 갖고 있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알아챌 것이다. 바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후보로 갑작스레 부상했던 정치권 외부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정부요직을 두루 거친 고건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즈음에, 안랩이라는 기업의 설립자이자 2011년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안철수 의원은 2012년 대선 즈음에 부각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유엔사무국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력대선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치권 외부의 인물이 부각되고 소위 말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성 싶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반기문 대망론'이 불거졌으니 말이다. 지난 5월 말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부터 여론은 사실상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기문은 차기대권주자에 포함되어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5월 말 이래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베테랑 관료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인이었던 적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정치로부터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과 같은 정치권 외부인사가 대선후보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치발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

02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권 외부인사들이 거듭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높은 인기를 얻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성정치권이 제 몫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툭하면 부정, 부패를 일삼아 왔다는 점이 한 몫 했을 것이다. 불법정치자금을 자동차 단위로 실어 나른다고 하여 만들어진 '차떼기당'이나 법안을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없이 날치기하여 통과시킨다는 '날치기당', 비리동료 국회의원을 수사기관의 체포로부터 막아준다는 '방탄국회' 같은 '신조어'들은 우리의 기성정치권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대 국회 역시 개원하자마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불법선거, 부정선거 문제로 인해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가 발생하고 재보궐선거국면에 돌입할 것이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기성정치인들이 이처럼 부정부패, 비리와 결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차라리 정치적 관여가 없었던 정치권 외부 인사가 낫다는 여론을 불러왔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기성정치권이 불만스러워 외부인사에 의존하더라도 정치불신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세계에서도 유래없을 정도로 초선의원 비율이 높다. 2000년대 이후로만 보더라도 2004년 17대 때 62.5%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도 2008년 18대 44.5%, 2012년 19대 49.3%, 2016년 20대 44% 등 50%에 근접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16대때 가장 낮았다고는 하나 40%를 넘겼다(<표1> 참조). 4년에 한번씩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인사로 물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초선의원 비율이 한 자리수에 불과한 일본은 물론이고 10%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1>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의원 수와 비율

국회 대수	국회의원 정원(명)	초선의원 수(명)	초선의원 비율(%)
15대(1996년)	299	137	46.5
16대(2000년)	273	111	40.7
17대(2004년)	299	187	62.5
18대(2018년)	299	134	44.8
19대(2012년)	300	148	49.3
20대(2016년)	300	132	44

이처럼 지속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나 17대 국회보다 더 나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비해 더 나아질 거라고 낙관하기도 어렵다. 정치권에 진입한 이른바 '새로운 피'는 정치권을 혁신하지 못했으며 곧 '기성정치권화' 되어 갔다. 2004년 이후 주요 정치·사회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국회는 10여년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표2> 참조)[1].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인사가 영입될 것이나 기성정치권 역시 지속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될 것 같다.

<표 2> 주요 정치·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도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2004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시민단체	5.7	5.8	5.1	5.4	5.1
군	5.2	5.3		5.1	5.6
노동조합	5.2	4.9		5	4.8
대학	5.5	5.5		4.8	5.2
언론기관	5.1	5.2	4.1	4.8	4.7
종교단체	5.5	5.4		4.7	4.7
대통령	5.1	5.4	3.8	4.4	5.9
사법부	4.8	4.9	3.8	4.4	4.6
대기업	5.2	5		4.3	4.7
정부	4.6	4.8	3.7	4.1	4.9
국회	3.9	4.3	2.6	3.5	3.6

* EAI정치사회인식조사

1)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2016, 18)에서 재인용. 신뢰도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짐. 조사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앞의 보고서 18쪽 참조.

03 외부인사 선호경향

정치권이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도 구태정치인이 싫으니 일단 물갈이라도 해서 '심판'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치권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정치권 내부를 긴장시키고 어찌됐든 개혁에 나서도록 만드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정치권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정치적 전문성을 폄훼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유능한 전문 정치인이 성장해 나갈 기반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에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한 전문성을 충분히 연마하지 않은 채 그 영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중견 기업의 CEO가 되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누구나 바로 사고가 난 자동차나 산 중턱에 처박힌 비행기, 망할 위기에 놓인 기업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랜 시간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 의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치영역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사람들은 요리사나 경영인, 파일럿, 군인 등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면 정치경험이 없더라도 정치영역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했으니 정치영역에서도 더 빠른 시간에 더 잘 배우고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짜고짜 처음부터 최고 전문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보통은 그걸 말리는 것이 정상이나 우리네 정치풍토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긴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인정되는 '전문성'이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 정치에서는 정치 경험이 많다는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곤 한다. 기성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다는 것은 노련한 정치 전문가로 받아들여지기보다 기성정치권의 낡은 관행에 익숙한 구태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정치경험이 부족함에도 고건, 문국현,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도 엄연히 오랜 시간 습득하고 연마해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외부 인사라고 할지라도 정치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시간을 들여 정치적 스킬을 습득하고 연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대통령은 한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 아닌가? 보통 대통령의 자질로 행정능력이 거론되지만 정치적 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갈기갈기 쪼개져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문제를 수습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정치력은 핵심이다. 더구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정당논리, 선거논리와 같은 현실정치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을 혼자서 해 나갈 수는 없다.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선거를 통해 다수 대중에게 선택되어지려면 전국 규모의 선거운동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근대정치는 정당정치와 떼어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정당정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최장집 선생처럼 유럽식의 계급정당만이 살 길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정당/조직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면 정당정치의 논리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그럴 때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 정당 밖의 일반국민들에게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런 준비와 경험없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때로는 정치신인 당사자들도 신드롬과 같은 높은 인기만으로 정치인 혹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갖춰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정치적 전문성이 부족한 채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가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있다.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2012년 대선을 되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대선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당선권에 근접한 정치신인출신의 유력 대선후보가 많았던 선거다. 그런 만큼 정치신인이 대선후보가 되었을 때 갖게 될 문제점들을 고루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 하다.

04 문재인후보의 고군분투[2)]

먼저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정 운영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문재인의 첫 출발은 대선출마로부터 1년이 채 되기 전에 시작되었다. 1년도 되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셈이다.

2013년 말에 펴낸 자서전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문재인은 18대 대선과정에서의 경험들을 상당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2011년 정치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모든 것들이 정치적 '첫경험'이었다는 서술이 나온다(111-115쪽). 2011년 가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는 문재인 후보의 첫 지원 유세 경험이었으며 2011년 12월 처음으로 정당에 입당했고 2012년 총선이 그의 첫 번째 선거 출마였다. 대선후보 경선에의 참여도 처음이었고 그 이후 대권 후보로서의 모든 일정 역시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정치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은 신인치고 문재인은 개인적 역량을 상당히 잘 발휘한 편이었다. 2013년 초 민주당대선평가위원회가 수행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TV 토론', '상황 대처 능력' 등 후보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후한 편이다(민주당대선평가위원회 2013, 110~115).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라든지 '유권자 신뢰 획득'과 같이 오랜 시간의 누적된 경험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정당조직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에서 매우 박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문재인 후보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더라도, 이른바 친노 인사 9인의 사퇴가 있었고 이해찬 당대표의 퇴진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해찬 당대표가 끝내 퇴진하고 나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친노 인사들의 임명직 포기 선언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문재인 그 자신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도 뒤따랐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문재인 후보는 상황을 주도하기보다 끌려다니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신인이었던 문재인 후보에게 이 모든 상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그의 자서전에 문재인은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2) 이 장의 내용은 한상진·최종숙(2014)의 1부 8장 "정치신인 문재인의 한계와 희망" 130~134쪽의 주장과 내용을 상당부분 활용하였음을 밝혀둠.

당 지도부가 갑자기 사퇴하고 나니 당 지도부 공백을 메워주고 캠프들 사이, 그리고 캠프와 시민사회를 조율할 비중 있는 인사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한다(210쪽). 경선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팀이 모두 사퇴해버렸을 때야 비로소 방송연설이나 토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따라서 자신이 직접 손보고 준비해야 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297쪽). 경험과 준비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물론 정치9단이었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일은 중차대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의 리더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계파갈등으로 어지러웠다 한들 자신의 소속 정당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국가를 맡기고 싶은 유권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05 안철수후보의 좌충우돌

2012년 대선의 또 다른 유력후보였던 안철수는 또 어떤가? 안철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일약 '안철수현상'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아마도 우리정치에서 '인기'만으로 당선권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정치신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반칙하지 않는 '착한 성공'(박권일 2012, 66),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시장주의'(정해구 2011, 59)에 대한 열망의 '현현'으로 받아들여진 당시 안철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안철수는 2012년 9월, 대선을 석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까지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정치'문외한'이었다. 안철수는 문재인보다도 더 '초짜'였던 셈이다.

그렇기에 안철수 후보 역시 대선기간 내내 정치적 경험부족이라는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는 준비부족과 역량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정했다. 당시 안철수와 함께 일했던 여러 사람들이 책으로 펴낸 후일담을 보면 이들 모두가 준비부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진심캠프에서의 66일간을 일지 형태로 정리한 이유미는 당시 진심캠프에는 본부장들과 실, 탐장급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선거 초짜'였다고 지적한다(이유미 2013, 24). 역시 진심캠프에서 활동했던 강동호는『안철수는 왜?』라는 책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진심캠프를 "떴다방"에 비유하기도 했다(강동호 외 2015, 25).

주목해 볼 점은 이처럼 선거캠프를 준비가 비미한 채로 남겨둔 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 본인의 뜻이었다는 점이다. 대선출마결심을 굳히고 몰래 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라고는 하지만(금태섭 2015, 64) 2~3개월 만에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진심캠프 내에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의 선거운동은 민주당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듯 한데(이수봉 2015, 47) 문재인 후보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민주당을 선거'초짜'인 안철수 후보와 선거'초짜'들로 이루어진 진심캠프가 통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니 대단히 무모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경험이나 감각이 부족하기에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문재인과 달리 안철수는 대선과정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창당을 시도하기도 하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하기도 하면서 정당인의 길을 걸었다는 점은 자신의 경험부족, 준비부족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06 대선후보의 기본자격

정치경험이 많다고 해서 정치를 잘 하느냐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다. 운전경험이 많더라도 사고를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론 노련한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일삼듯 우리 정치에서는 노련한 정치인일수록 구태정치, 비리정치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권력에 가까이 갈수록 불법 청탁과 같은 유혹도 더 많아질 것이며 그만큼 현혹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도덕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적 스킬에 익숙하고 노련하지만 구태적이지 않은 전문정치인을 발굴, 성장시킬 필요도 있다. 여러모로 정치권의 개혁이 급선무다. 그러나 난폭운전자가 싫다고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듯이 구태정치가 싫다고 해서 정치적 전문성마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2012년 대선에서의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해 처음 대선에 도전하는 모든 신인들이 공유하는 문제다. 그들은 정치 영역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기에 정치영역에서는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안철수 두 정치신인은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정당활동도 하면서 정치적 전문성을 쌓아나가고 있다. 처음 대선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신인들을 위한 '교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더 이상 정치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길러나가는 정치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은 기존의 구태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일반시민들도 정치'문외한'에 '묻지마' 열광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정치 역시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동호 · 오창훈 · 정연정 · 강연재. 2015.『안철수는 왜?: 안철수의 지난 3년, 숨겨진 뒷이야기』. 더굿.

2) 고종석. 2005. “정치는 현실이라지만.”《한국일보》6월 23일자.

3)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6. <국회불신 요인 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18대와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4) 금태섭. 2015.『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푸른숲.

5) 문재인. 2013.『1219 끝이 시작이다』. 바다출판사.

6)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2013.『새로운 출발을 위한 성찰』. 민주당.

7) 박권일. 2012. “세대와 정당정치: 정치적 세대동맹의 역사와 의미.”『황해문화』봄호. 54-72.

8) 이수봉. 2015.『이제 다시 시작이다: 새세상 새정치』. 아침이슬.

9) 이유미. 2013.『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 나무의숲.

10) 정해구. 2011. “안철수현상, 시민정치의 부상, 정당정치 재편의 전망.” 『내일을여는역사』45호. 50-65.

11) 한상진·최종숙. 2014.『정치는 감동이다』. 메디치미디어.

신문기사

1) “안철수 '불출마' 이후/꺼지지 않는 ‘안철수 신드롬’… ‘박근혜 대세론’ 흔들다.” 《세계일보》2011년 9월 8일자.

2) “여권 대권주자, 최대변수 떠오른 반기문 여권후보 될 가능성 커.” 《파이낸셜 뉴스》2016년 6월 26일자.

정치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전문성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6년 7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